

잘나가는 직장 불자회 되려면
6가지 '약'을 써라~

사람 먼저 챙기면 '어울림의 행복' 이...

'회원'은 한가족' 경조사 챙겨라

자신의 생일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일 만큼 눈코 뜰새없이 바쁜 직장인 불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생일케이크가 배달된다면? 정답은 '감동 먹는다'이다. 바쁘고 고된 업무에 쫓겨살던 그에게 자신을 챙겨주는 도반들의 따뜻한 정이 가슴에 꽂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한번 걸러 나오면 그는 향후 1년간 불자회 행사에 빠지는 일이 없다.



고 있는 불자회에서 이런 경조사를 잊지 않고 챙겨준다면 '안녕어울림'이 생긴다'고 정상현 춘천시청 도반회장은 강조한다. 회원들의 경조사를 기억하는 것은 필수인 셈이다.

공감대 이룰 프로그램 활용하라

봉사활동이나 연등만들기 등은 회원들의 마음과 마음을 고리로 연결하는 끈이 된다. 힘든 일을 함께 하면서 정이 새록새록 싹트는 것이다. 가족이 함께 템플 스테이에 참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 수행은 열심히 하면서도 불자회 활동은 소홀히 여기는 불자들의 성향은 직장불자회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수행을 최고가치로 삼는 사람에서도 개인 수행보다 대중생활을 우선으로 한다. 따라서 회원들에게 직장불자회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엄연히 조직이고, 함께 꾸려가

는 공동체라는 것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진행된 대전공무원불자연합회 총무는 "회원들이 모여 3시간 동안 함께 연등을 만들고나면 회원들이 전보다 훨씬 가까워 느껴진다"고 조언한다.

'참일꾼' 인재 키워라

직장불자회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입회원은 좋고 직장을 떠나는 기존회원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있는 인사이용이 있을 경우 회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일할 사람이 모두 퇴임하고 나면 직장불자회는 이름만 남은 단체로 전락하고 만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을 키워야 모임이 산다는 의미다. "조직의 힘은 구성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메시지다.

정찬연 철도공사불교단체협의회 포교위원은 "어느 단체나 소속회원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훌륭한 인재는 있기 마련"이라며 "일할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우리 공간' e카페를 운영하라

일상생활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카페. 직장인들은 그곳에서 포닥터 세상을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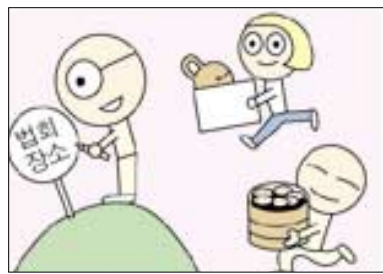


e카페는 직급과 나이를 따지지 않는 회원들의 마음나눔 공간이 되었다가 감춰진 까를 발산하는 자유로운 무대가 되기도 한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할 수 없는 얘기도 이곳에서는 쉽게 털어놓을 수 있고, 법회에서는 만나지 못하는 이들과 만날 수 있다. 잘 활용하면 하면 회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가 좋은 예다. 교사불자원은 지역

별 행사 안내와 회원동정, 좋은 경구·수행법 소개 등의 방을 마련해 7백여명의 회원을 맞는다. 엄법준 교사불자원 홍보부장은 "카페의 맛을 아는 이라면 하루라도 찾지 않고는 배겨내지 못한다"고 소개한다.

'동기부여' 역할을 분담하라

직장불자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정기법회를 한번 열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목탁 등 집기를 챙기는 일에서부터 법회장소 준비, 법사 섭외, 법회 공지, 회원 참여 독려, 의식 집전 등 한두사람의 힘으로는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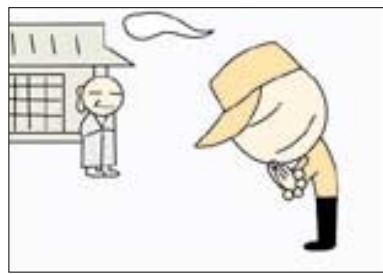


전국공공단체불교연합회 창립을 주도했던 한국은행 불이회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역할을 주어 모임을 운영해나가는 대표적인 단체. 불이회가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는 이유는 회원들로 하여금 동기를 부여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 차

려진 상 보다 자신이 처한 상에 애정이 가는 이치다. 하용이 한국은행 불이회장은 "책임이 주어지면 모임에 대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인근 사찰·스님 도움 받아라

지난해 1월 본지가 170여 직장불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도법사가 없는 곳이 약 72%에 달했다. 재가불교 바람을 불러일으킨 근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받고 있는 직장불자회의 현주소가 극명하게 드러난 수치다.



그러나 잘나가는 모임으로 통하는 직장불자회는 지도법사가 있는 곳이 더 많다. 서울지역 구청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은평구청 불심회는 은평구사원연합회 소속 스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류태근 은평구청 불심회 총무부장은 "지도법사 스님들이 관심이 클수록 회원들의 참여율과 자긍심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기관내에서 불자모임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박봉경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부산불교산악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마음을 닦고 신심을 키우는 부산지역의 산악인 모임, 부산불교산악회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마음을 닦은 산이 주는 무언의 가르침을 몸으로 느끼며 언제나 실천하는 참불자가 될 것을 서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불교산악회의 태도는 199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범어사에서 열린 창립법회에는 부산지역 불교산악인 150여명이 참석해 불교산악인 모임의 깃발을 이 외에도 우리 산악회는 영남과



부산불교산악회는 산행을 통해 산이 주는 무언의 가르침을 배우는 산행모임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정기산행에 참가한 회원들의 모습.

정기산행·봉사활동으로 신심도 '정상급'

'영·호남 화합' 보람...교육 강화 계획

높이 들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1997년에는 서울·대구·성남의 불교산악회와 함께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를 결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신행과 취미생활의 접목이 이뤄지지 못하던 당시 불교계의 상황에서 부산불교산악회는 이를 실현함으로써 전국에서 불교산악회가 생겨나는 불씨를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이제 불교산악회는 전국적으로 40여 단체에 이르고 있으며, 부산지역에도 다섯 개의 불교산악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명산과 그곳에 위치한 사찰을 찾아 신심을 다져온 우리 산악회는 450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견실한 신행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창립 이후 신행현장에 꾸준히 동참하고 함께 해준 회원들의 열성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매월 둘째주 일요일 실시되는 정호남지역간 벽을 허물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6년 광주불교산악회, 대구불교산악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2차례씩 합동산행을 겸한 영·호남 불자화합 마당을 열고 있습니다. 한참 지역 감정이 불거졌을 때에도 영·호남 불자산악인들의 합동산행은 계속돼 왔습니다.

올해로 창립 13주년을 맞는 부산불교산악회는 지난 12월 박용락 회장을 제7대 회장으로 선출하면서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20여명으로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는 회원들의 동의 아래 보다 알차고 투실한 모임으로 거듭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단된 차상(車上)법회를 되살리고 신행지도위원을 위촉해 회원들의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는 등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회원이 함께 기도하고 실천하는 모임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김춘식 사무국장

고불총림 백양사 강원 입방공고

불기 2549년 고불총림 백양사 강원 신입생 및 편입생 방부를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 모집요강

- 신입생(치문반) ----- 00명 • 편입생(사집, 사교) ----- 0명

■ 모집기간

- 신입생 / 편입생 ----- 2005년 2월 28일

■ 제출서류

신입생	1차 입방자	• 교육필증 1부 • 수계증 1부 • 승려증 사본 1부	편입생	• 교육필증 1부 • 수계증 1부 • 승려증 사본 1부 • 전학증, 수료증
	2차 입방자	• 행차교육원 입교지원서 사본 1부 • 교육원 제출용 신상명세서 사본 1부		
공통 • 증명사진 3장 • 입방비 30만원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사회복지학과 입학 지원 희망자에 한함)				

■ 입방학인승에 대한 특전

4년제 종합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편,입학 특전 및 등록금 전액 지원 (졸업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취득과 함께 학사자격 수여로 승가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편입이 가능하며, 수업은 주1회 남부대 교수들이 직접 강의함)

- 입방 - 1차 : 3월 22일(음 2월 15일) - 편입생 및 사미계수지자
2차 : 4월 14일(음 3월 7일) - 28기 행차교육 수료 후 사미계수지자

■ 문의처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백양사 강원 ☎ 강원 : 061)392-7324 / 교무 : 011-416-0616 (대학교 편,입학에 뜻을 가진 학인승은 26일까지 전화로 접수 가능함)

불기 2549년 2월 18일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두백
강주 혜권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 용, 인도에 사는 용 종족들이 숭배하는 신화의 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 하였습니다. 용의 배속에 천불천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대의 용이 탄생하였습니다.

◆ 이곳방생지 - 칠포해수욕장. 보경사는 15분거리 용의크기: 넓이 20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중국에 가셔야만 탈 수 있는 용, 한국에서도 탈 수 있다!」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일체중생의 머리색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입니다. 전망은 푸른바다와 들판, 뒤로 수려한 명산이 병풍처럼 둘러 싸인 곳. 이곳이 바로 성지순례의 공덕, 길지라 하옵니다.... (용꿈꾸세요)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제141호 한불총02-44호 등재

대한불교 (禪)선종 총림 칠포 대원사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